

코로나19로 불가능해진 여름성경학교 및 캠프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성서유니온이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캠프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CAMP@home” 프로그램을 한국성서유니온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역하고 편집했습니다. 가정에서 진행하는 재밌고 은혜롭고 안전한 여름캠프를 통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WELCOME!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가족들을 위해 **가정예배(가족캠프)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사전준비 없이도 모든 연령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매우 쉽고 간단하게 구성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섯 과**로 구성했습니다. 주일마다 한 과씩, 5주 동안의 **가정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해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의 **가정 수련회**를 열어보세요. 화상회의 어플이나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가족들과 **온라인 연합 캠프**를 기획해보세요.

프로그램 주제는 **'긴급상황! 당신의 선택은?'**입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라는 긴급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긴급상황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주어진 이 **'긴급 미션'**에 온 가족이 함께 도전해보세요!

긴급상황! 당신의 선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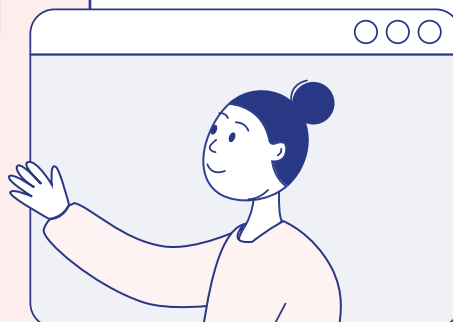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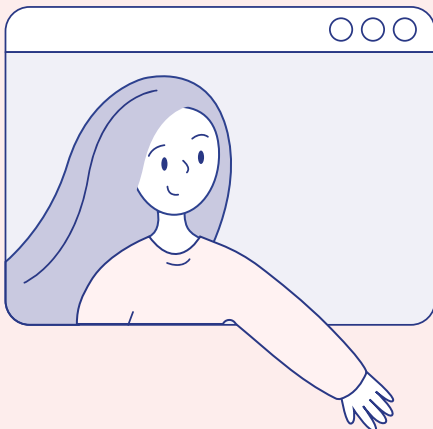
1과_ **불안 vs 평안**: 마태복음 6:28-31

2과_ **지겨움 vs 세움**: 마태복음 5:1-10

3과_ **욕심 vs 관심**: 마태복음 5:13-16

4과_ **쓸쓸함 vs 함께함**: 마태복음 14:22-33

5과_ **두려움 vs 믿음**: 마태복음 8:2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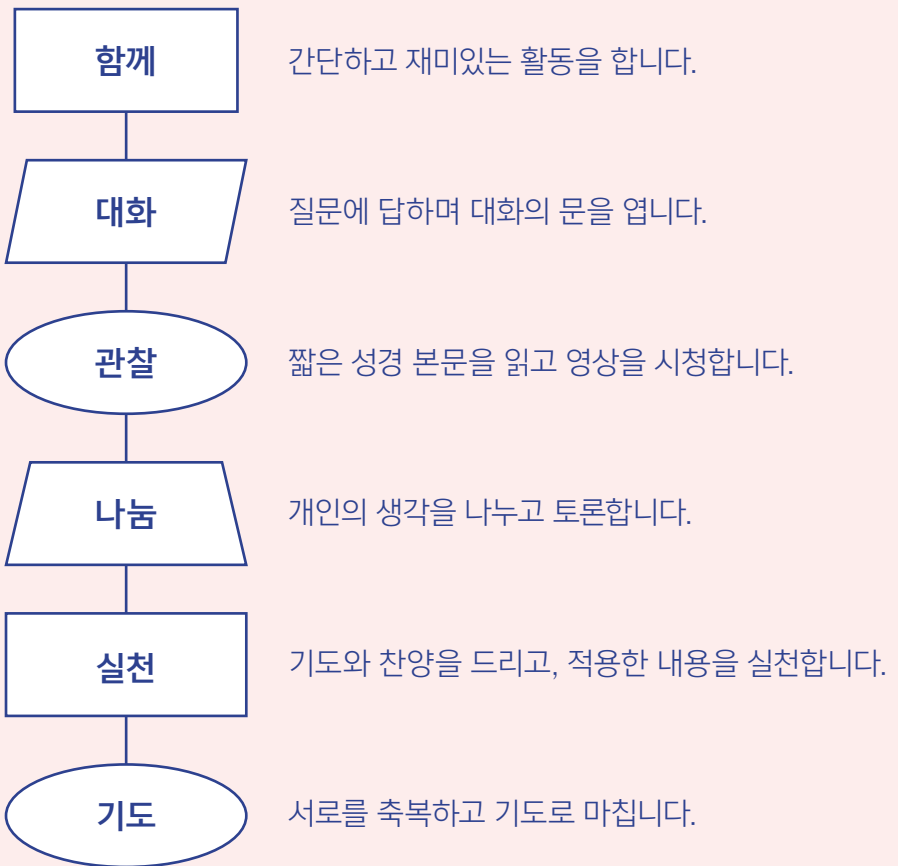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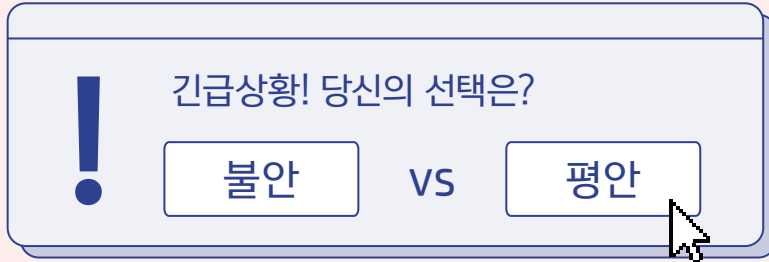
가족캠프 진행 Tip

각 가정의 환경과 형편에 맞는 방법을 찾아 프로그램을 진행하세요. 한 번에 큰 열매를 기대하기 보다 매시간 발견하는 작은 성취들에 감사하세요.

1. 온가족이 함께 캠프를 진행할 장소를 선택하세요. 매번 같은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빠나 엄마가 자료를 먼저 읽고,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준비물을 준비해주세요. 인도를 돌아가면서 맡고, 성경봉독, 찬양인도, 영상재생도 나눠서 하면 좋습니다.
3. 나눔 시간에 한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모임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권장하고, 토론은 모든 사람이 나눔을 마친 후에 진행해주세요.

프로그램 구성





함께

가족이 함께 자연 속에서 수집할 수 있는 것들(풀잎이나 꽃 등)을 탁자에 놓아 주세요. 외부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자연 속 멋진 경관을 검색 해서 함께 봐도 좋습니다.

대화

다음은 소리 내어 읽어주세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의 상황을 불안하게 느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우리를 불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민’과 ‘불안’의 차이점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나 친구, 가족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더 주의하기 위해 고민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지나친 걱정으로 불안에 빠지는 건 피해야 해요.

특히 잘못된 정보는 우리를 더 큰 불안에 빠지게 만들죠. 가족 중 누군가 코로나 19에 대한 ‘가짜뉴스’를 말한다면 즉시 바로잡고 안심시켜주세요.

관찰

하나님은 불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6:25-34을 읽어보세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읽거나 돌아가며 읽어도 좋아요. 본문을 읽은 후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한글-걱정하지 말아라 bit.ly/homecamp01

영어-Do not worry bit.ly/homecamp02

나눔

가족이 함께 자연에서 수집한 것들을 보며 짧게 묵상하세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풀과 꽃과 새를 쳐다보라고 하셨을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각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에게조차 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하시는지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연을 돌보듯 우리도 돌보실 거예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읽어주세요.

“불안의 반대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위기가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평안은 불안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는 잠시 행동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나를 불안에 빠지게 만드는 일에 대해 하나님에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평안을 주실 거예요.”

실천

다음 <보기>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실천하세요.

- ① 자연에서 수집해온 것들 중 하나를 손으로 잡고, 하나님이 꽃이나 새들보다 나를 더 아끼신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세요. 이 사실이 나에게 주는 느낌을 표현해보세요.
- ②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노래(찬양)를 한 곡 골라서 가족이 함께 불러보세요.
- ③ 가족이 함께 꽃집에 가서 꽃다발을 사 오세요. 꽃다발을 병에 꽂아 테이블 위에 두세요. 가족 중에 불안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꽃다발을 보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안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 ④ 일러스트레이트 미니스트리(bit.ly/homecamp03)에서 컬러링 페이지를 프린트해서 가족이 함께 색칠해보세요. 가족 중 한 사람은 아래 기도문을 읽어주세요. 컬러링 페이지를 완성하여 가족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으면 볼 때마다 이 기도문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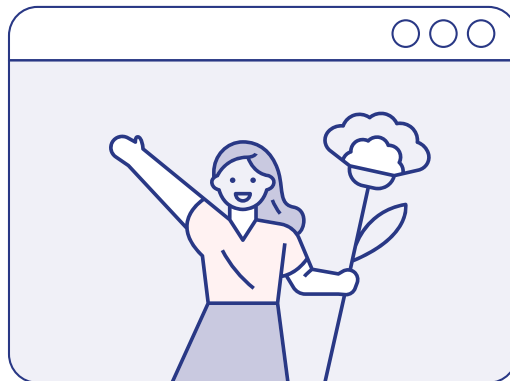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임을 압니다.
우리가 걱정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불안에 빠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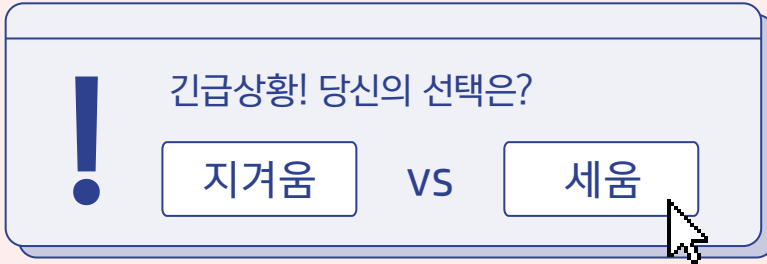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을 잘 다루는 지혜를 주세요.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이 절망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성경에 가득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서로를 위해 축복기도를 하며 예배를 마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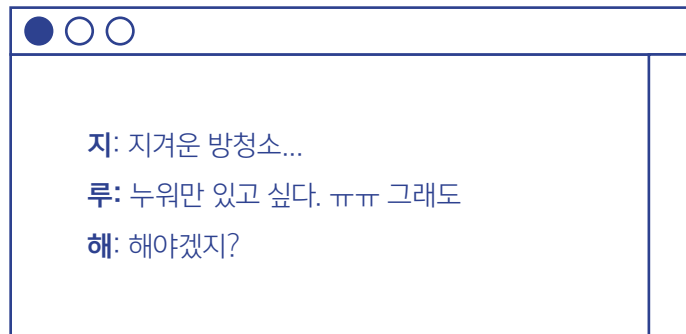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민수기 6:24-26, 새번역).





함께

'지루(누)해', '따분해', '지겨워' 중 하나로 삼행시를 지어보세요.



대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집 안에만 있어야 하니까 지겨우시죠?
하나님이 이런 지겨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고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는 건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이죠.
그런데 지겹고 평범한 이 일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셨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매일 반복하는 지겨운 일을 하나 선택하세요. 그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세요. (예: 이를 닦으며 허밍으로 노래하기)



관찰

하나님은 지겨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산위에서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은 모두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로 끝나요. 풀어 쓰면 “~라는 목적을 세우는 사람이 행복하다”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세워주신 거예요. 가족이 함께 마태복음 5:1-10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 읽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한글-예수님이 가르치신 여덟 가지 복 bit.ly/homecamp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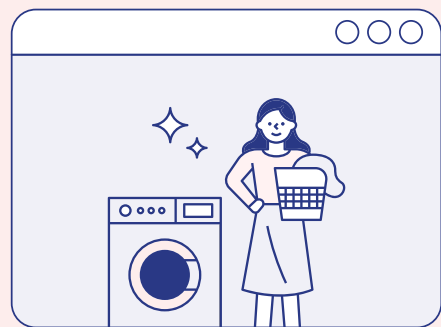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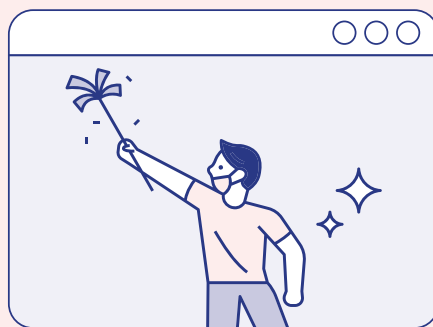
영어-Sermon on the Mount bit.ly/homecamp05

나눔

행복을 위한 여덟 가지 목적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요? 이 말씀은 걱려가 되거나(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도전이 되기도 할 거예요(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읽어주세요.

“지겨움의 반대는 세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에 세우면, 지겨운 일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혼자 킁킁대며 그 목적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거니까요.”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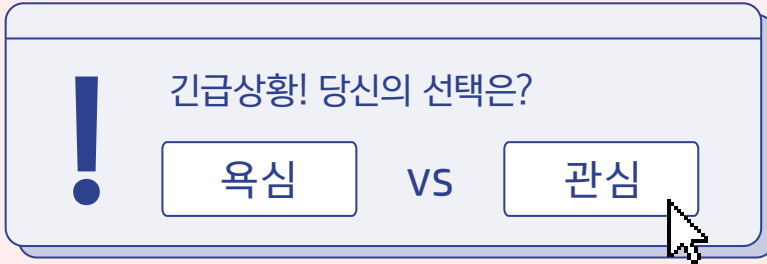
다음 <보기>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실천하세요.

- ①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집안일 중 하나를 선택해서 목적을 세워보세요. (예: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가족들이 돌아가며 설거지하기) 일주일 동안 가족이 함께 실천해보세요.
- ② 오늘 읽은 마태복음 5:1-10에서 한 구절을 골라 기도문으로 바꿔보세요. 글로 쓰거나 동작으로 나타내거나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 ③ 말씀에 어울리는 찬양을 골라서 함께 불러보세요.
- ④ 가족이 다함께 힘을 모아 10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서 실천해보세요. (예: 집 청소, 복도나 골목의 쓰레기 줍기) 가족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

서로를 위해 축복기도를 하며 예배를 마치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민수기 6:24-26, 새번역).



함께

집안의 모든 커튼을 치고 불을 다 꺼주세요(이 게임은 밤에 해야 효과적이에요). 술래 한 사람을 정해서 손전등을 주세요. 술래는 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숫자를 20까지 세어주세요. 그동안 나머지 가족들은 집 안 곳곳으로 흩어져 숨으세요. 술래는 숫자를 다 세고 손전등을 비춰서 숨은 가족들을 찾으세요.

대화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휴지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어요. 휴지를 하나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재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위기가 찾아올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내 욕심만 챙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길 바라실 거예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최근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돕는 사람들에 대해 보거나 들은 내용이 있나요?

관찰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함께 마태복음 5:13-16을 읽으세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으로 말씀을 읽어보세요).



나눔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두운 곳에서 손전등을 켜면 빛은 어떤 일을 하나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읽어 주세요.

“욕심의 반대는 관심입니다. 소금은 음식 맛을 좋게 하고, 빛은 볼 수 있게 합니다. 소금과 빛은 무언가를 더 좋게 만듭니다. 우리도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16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천

다음 <보기>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실천하세요.

- ① 다섯 명의 친구 또는 이웃을 정하세요. 가족이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응원 문자를 보내주세요.
- ② 가족이 함께 동네를 걸으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민수기 6:24-26의 축복기도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인터넷(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지도의 로드뷰를 확대해보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 ③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보세요. 민수기 6:24-26의 기도를 가족이 함께 읽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올려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이웃을 위한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적어보세요.

기도

서로를 위해 축복기도를 하며 예배를 마치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민수기 6:24-26 새번역).



! 긴급상황! 당신의 선택은?

쓸쓸함 VS 함께함

함께

가족 모두 등글게 마주보며 모여주세요. 한 명이 오른손바닥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내밀면 다른 한 명은 그 위에 오른손을 올려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모든 가족이 오른손을 그 위에 올려주세요. 오른손을 다 올렸으면 왼손도 같은 순서로 올려서 손탑을 완성하세요. 그 다음엔 가장 밑에 있는 손을 가장 위로 올리는 것을 반복해주세요(탑의 전체 높이가 낮아지지 않아야 해요). 손탑을 최대한 높이 올려보세요.

대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손을 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웃 또는 친구들을 만나기 힘들어진 거예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뭔가 부족하죠. 쓸쓸한 마음이 들진 않나요? 쓸쓸한 마음이 커져서 외로움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강인한 사람일지라도 심각한 마음의 병에 걸리게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쓸쓸함을 이길 수 있어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쓸쓸함을 느끼고 있을 친구나 가족이 누구일지 생각해보고 이름을 이야기해주세요. (나중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관찰

하나님은 쓸쓸함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함께 마태복음 14:22-33을 읽어주세요.

베드로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배에서 내려서 호수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던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신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나눔

폭풍 속에 혼자 남겨졌다고 오해했어요. 쓸쓸함과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물에 빠졌고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주셨어요. 우리도 삶 속에서 폭풍우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에 휩쓸려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쓸쓸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한글-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bit.ly/homecamp06

영어-Jesus Walks on Water(1분 27초부터 시청) bit.ly/homecamp07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도와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특히 쓸쓸함을 느끼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손을 잡아줄 수는 없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읽어주세요.

“쓸쓸함의 반대는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나누며 함께할 가족과 친구들을 주셨고 교회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시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 관심을 표현할 수 있고 챙겨줄 수 있고 기도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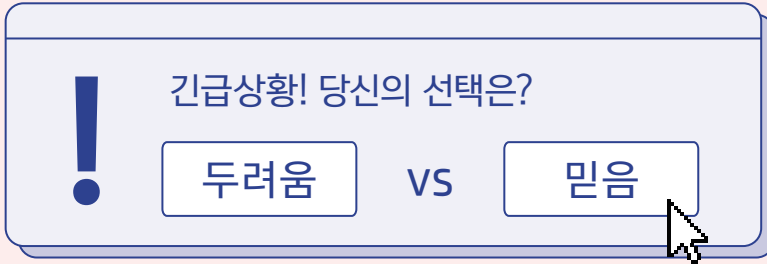
다음 <보기>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실천하세요.

- ① ‘버블맵’을 다운로드 받아(bit.ly/homecamp08) 사람 수에 맞게 인쇄하세요. ‘버블맵’에 가족, 친구, 이웃의 이름을 쓰고 가족 모두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주세요. 하루에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해주세요.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도 좋아요.
- ② 친구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노래를 골라 함께 불러보세요. 노래 부르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SNS에 올려서 친구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 ③ 보드지를 준비해주세요. 물 한 그릇을 가져와 한 사람씩 손가락에 물에 묻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물이 말라서 이름이 안 보이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 기도해주세요.

기도

서로를 위해 축복기도를 하며 예배를 마치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민수기 6:24-26 새번역).



함께

2분 동안 가족 모두 나뭇잎이나 장난감 배와 같이 물에 띄울 수 있는 것을 가져 오세요(종이배를 접는 것도 방법이에요). 충분한 크기의 통에 물을 채우고 한 명 씩 가져온 것을 띄워보세요. 나머지 가족의 임무는 제한시간 1분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 바람을 일으켜 가라앉히는 거예요.

대화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불안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은 우리 삶을 조종해버리 거거든요. 두려움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고 어딘가에서 숨어 떨고만 있게 만들 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밤에도 잠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두려움에 굴복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신 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나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 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관찰

하나님은 두려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말씀을 읽기 전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bit.ly/homecamp09) 영상을 전 체 화면과 최대 볼륨으로 틀어주세요.

영상과 음성을 배경효과로 삼아 다함께 마태복음 8:23-27을 읽어주세요. 예수 님이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는 장면(26절)에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영상과 음성을 멈춰주세요.

나눔

우리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읽어주세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우까지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을 믿길 바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폭풍우 같이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꼭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실천

다음 <보기>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실천하세요.



- ① 거실 소파, 놀이터 벤치, 나무 아래 돛자리 등 온가족이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눈을 감고 말씀 속의 배에 나도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예수님은 나(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나요? 타이머를 사용해서 정확히 2분 동안 가족 모두 조용히 상상하는 시간을 보낸 후 나눠보세요.
- ② ‘주 품에 품으소서’(bit.ly/homecamp10)라는 찬양 또는 가족이 고른 찬양을 함께 불러보세요.
- ③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가족이 다함께 기도해주세요.
- ④ 집 안의 물건들을 사용해서 큰 배를 만들어보세요. 큰 대야에 막대기로 돛대를 세우고 형겅 돛을 다세요. 완성된 배를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주세요. 그 배를 볼 때마다 우리 가족과 한 배에 타시고 선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

서로를 위해 축복기도를 하며 예배를 마치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민수기 6:24-26, 새번역).